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방향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논의

- 재직자, 퇴직후 재취업자 등의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필요
- AI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불확실성 완화 필요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4.17.(금) 「제4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 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①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②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③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 (거버넌스개혁반, 5명)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분과장),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금번 회의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관련 규제·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권오현 위원장은 AI 대전환에 따라 AI 산업은 육성하되, 고용없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을 활용하여 재직자·퇴직후 재취업자 등에 대한 AI 활용 역량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AI 산업 특성을 고려, 기업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관련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산업 육성과 제도 개선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되, 국가 전체의 편익과 위험, 취약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문소영 前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시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기업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동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1610)
		담당자	사무관	박승환 (niceguystar@korea.kr)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hidhwn@korea.kr)

